

운명의 주말... “한판 뜨자”

광주FC, 승격 향한 마지막 분투

K리그 챌린지 35R 내일 부천 원정...4위와 1점차 잔여 2경기 ‘사활’

두 경기 밖에 남지 않았다. 광주 FC가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광주 FC가 8일 오후 2시 부천종합운동장에서 K리그 챌린지 35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부천전 이후 오는 16일 고양 원정을 끝으로 2014시즌 정규시즌을 마무리한다. 아직 안갯속에 가려져 있는 4강 싸움이지만 이번 주말 경기에 따라 각 팀의 운명은 어느 정도 운곽을 드러나게 된다. 광주는 앞선 34라운드 안산 경질정과의 원정경기에서 전반

전 2-0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면서 2-3의 뼈아픈 역전패를 당했다. 승점을 더하지 못하면서 순위는 5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 4강에서 두 계단 물러나 있지만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 4위 수원 FC와의 승점 차는 1점, 3위 FC 안양도 2점 차로 가시권에 있다. 4강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물론 부천전 승리를 거두고 나서 생각할 수 있는 높은 고지이기도 하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광주가 부천보다 앞서있다. 부천은 올 시즌 6승8무20패에 그치면서 최하위인 10위에 머물러 있다. 또 홈에서는 12경기 연속 무승(5무7패)의 부진에 빠져있다. 상대 전적에서도 광주가 FA컵 포함 네 차례의 맞대결에서 2승2무를 기록하며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공은 동글다. 방심은 금물이다. 광주는 지난 안산과의 경기에서 전반에만 두 골을 넣으며 승기를 잡고도 내리 세

골을 허용하며 역전패를 당했다. 또 부천과의 최근 두 차례 경기에서 모두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미 4강에서 탈락한 부천과 비교하면 승리에 대한 부담도 광주가 훨씬 크다. 신중하게 90분간 경기를 풀어나가야 한다. 두 경기 연속 골 맛을 본 임선영이 버티고 있는 공격은 든든하다. 안성남도 최근 원정 2경기에서 연달아 골을 넣으며 팀 적응을 끝냈고, 파비오와 디에고도 활발한 움직임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이번 부천과의 경기는 광주에게는 중요한 갈림길이다. 승강을 향한 마지막 희망을 잡기 위해 반드시 승점이 필요하다. 남기일 감독대행은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본능적으로 강해진다”며 다가온 부천전에 대해 필승의 의지를 밝혔다.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다. 광주가 최하위 부천을 상대로 승점 3점을 더하며 4강 플레이오프 티켓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태극전사들 獨리그서 ‘맞짱’

손흥민 ‘레버쿠젠’ vs 구자철·박주호 ‘마인츠’ 내일 격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에서 처음으로 한 경기 2골을 터뜨려 기세가 오른 손흥민(레버쿠젠)이 국가대표팀 합류를 앞두고 대표팀 동료인 구자철, 박주호(이상 마인츠)와 맞대결을 펼친다. 레버쿠젠은 8일 오후 11시30분(한국시간)부터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리는 2014-2015 분데스리가 11라운드 홈경기에서 마인츠와 격돌한다. 울리 슈틸리케(독일)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 합류해 요르단(14일), 이란(18일) 원정 평가전에 나설 예정인 손흥민은 최근 소속팀에서 다소 주춤하다 챔피언스리그에서 움츠러든 어깨를 활짝 폈다. 그는 지난달 30일 마그데부르크와의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2라운드에서 상대 선수의 정강이를 걷어차 퇴장당했다. 경기 내내 이어진 상대의 거친 플레이에 흥분한 마음을 숨기지 못한 결과였다. 이어 1일 정규리그 10라운드에서는 ‘진정팀’ 함부르크와 맞붙었으나 큰 활약을 보이지 못한 채 후반전에 교체됐다. 하지만 손흥민은 5일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4차전 원정에서 팀의 2골을 책임지며 2-1 승리를 주도, 레버쿠젠이 C조 선두를 지키는 데 앞장섰다.

레버쿠젠은 최근 분데스리가 5경기에서 1승(3무1패)을 거두는 데 그쳐 9위(승점 16)에 올라 있다. 최근 2연패에 빠져 9위(승점 14)로 처진 마인츠에서는 부상을 털고 돌아온 이후 부활의 발판을 마련한 구자철이 기대를 모은다. 지난달 26일 볼스부르크와의 9라운드에서 복귀한 그는 1일 브레멘과의 10라운드에서 시즌 첫 도움을 작성하는 등 견제 한 모습을 보이며 ‘슈틸리케호’에 처음으로 발탁됐다. 같은 팀의 박주호는 지난달 14일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에서 발목을 다친 이후 그라운드에서 나서지 못했음에도 슈틸리케 감독의 부름을 받아 이번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을 끈다. 지난달 평가전에서 ‘슈틸리케호’의 첫 주장 완장을 찾던 기성용(스완지시티)은 아스널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홈경기를 치르고 대표팀에 합류한다. 최근 퀸스파크 레인저스에서 준수한 활약을 보이며 국가대표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린 윤석영은 리그 3위를 달리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를 준비한다. 잉글랜드 챔피언스(2부)에서는 대표팀의 ‘에이스’ 이청중(볼턴)이 위건을 상대로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사냥에 나선다. /연합뉴스

한국시리즈 좌완 ‘진검승부’

3차전 삼성 장원삼 vs 넥센 오재영 선발대결

원점으로 돌아간 한국시리즈에서 토종 좌완이 맞대결을 갖는다. 한국시리즈 패권을 향한 삼성 라이온즈와 넥센 히어로즈의 세 번째 대결이 7일 오후 6시30분 목동구장에서 펼쳐진다. 삼성은 장원삼이 선발로 출격하고 넥센은 3선발로 도약한 오재영이 마운드에 오른다. 한때 한술밥을 먹었던 두 토종 좌완의 한국시리즈 맞대결이다. 지난 4·5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1·2차전에서 양팀은 나란히 1승씩을 챙기며 기싸움을 했다. 팽팽했던 1차전 대결은 홈런이 향방을 갈랐다. 삼성이 나바로 투런으로 2-2까지 만들었지만 결정적인 한방은 넥센 강정호가 장식했다. 강정호는 2-2로 맞선 8회 차우찬을 상대로 결승 투런포를 쏘아올리며 넥센에 한국시리즈 첫 승을 안겨줬다. 2차전은 마운드 싸움에서 일찍 승패가 결정됐다. 믿었던 소사가 깨어난 삼성 타선에 못매를 맞으면서 2.2이닝 6실점으로 조기 강판됐다. 반면 삼성 윤성환은 박병호에게 솔로포를 내주기는 했지만 7이닝 1실점의 쾌투로 승리를 결정지었다. 원점으로 돌아간 승부에서 옛 동료가 마운드에서 만난다. 오

재영과 장원삼은 각각 2004년과 2006년 현대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한 옛 동료다. 오재영이 데뷔 첫해 3.99의 평균자책점으로 10승9패를 찍으며 신인왕에 올랐고, 장원삼도 2.85의 평균자책점으로 12승10패를 기록하는 등 남다른 출발을 했다. 2010년 장원삼이 삼성으로 트레이드 되면서 큰 무대에서 적으로 만나게 된 두 사람. 장원삼이 팀을 대표하는 좌완 에이스로 3년 연속 한국시리즈 우승의 기쁨을 누리는 동안 오재영은 팔꿈치 부상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갖길만 행보를 했다. 그러나 오재영은 지난 LG와의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6이닝 1실점의 역투로 MVP에 오르는 등 팀의 가을잔치에 큰 힘을 실어줬다. 우승 단골팀의 장원삼과 옛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 오재영의 마운드 맞대결, 한방과의 싸움이 숙제가 될 전망이다. 삼성 나바로가 두 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하고 있고, 넥센 강정호는 포스트 시즌 3경기 연속 홈런으로 1차전 승부를 갈랐다. 삼성 이승엽과 넥센 박병호의 홈런포도 동동되는 등 한방과의 싸움이 두 토종 좌완의 표정을 결정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선수들 ‘어린이 야구교실’

22일 챔피언스필드서 투구·타격 훈련

KIA 타이거즈가 어린이 야구교실을 연다. 이번 어린이 야구교실은 오는 22일 챔피언스필드 그라운드와 실내연습장에서 진행되며 2014 KIA 타이거즈 어린이 회원을 비롯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비는 5만원으로, 참가비의 일부는 사회공헌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수업은 캐치볼과 투구, 타격, 수비 훈련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된다. 박준표, 윤완주, 이인행 등 KIA 선수와 코치들이 강사로 나서 꼼꼼하게 기본기 교육을 도울 예정이다. 참가 어린이들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KIA 타이거즈 모자 및 유니폼, 베이스볼기트(글러브·베트·공), 유소년 가방, 응원 수건 등이 기념품으로 증정된다. 사진 촬영 및 사인회, 챔피언스 필드 투어 등의 부대 행사도 마련됐다. 참가 신청은 7일 오후 2시부터 이메일(kid.tigers14@naver.com)로 하면 되고, 이메일 접수 후 입금 확인이 되면 최종 접수된다. 신청순 60명을 대상으로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KIA 홈페이지(http://www.tigers.co.kr)나 마케팅팀(070-7686-8073)에 문의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임선영